

서양음악 적성검사를 통한 한국음악 적성측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 고든의 음악적성검사(AMMA)를 이용하여 -

김 윤 희

차 례

- I. 서 론
-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IV. 결과
- V. 해석 및 결론

I. 서 론

다양한 사고체계와 생활습관을 갖고 있는 인간은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인간으로 형성 되는 동안 어떠한 환경 안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교육의 역할은 개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에 맞는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음악교육에 있어서도, 음악적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일은 학생 개개인의 음악적 잠재력을 찾아 그것을 개발하여, 예술적 감성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겠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음악적성에 관한 연구는 음악 심리학의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음악

적성을 측정하여 그것을 근거로, 한 개인이 어느 정도의 음악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학습을 통하여 앞으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음악적 행위들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예견하는 것은 특히 음악교육에 있어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음악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음악적성 측정에 관심을 갖고 많은 음악 심리학자 및 음악 교육자들이 음악적성의 본질을 연구하고, 검사방법들을 개발해 왔다. 장기간의 실험과 연구를 근거로 한 것으로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고든(Edwin E. Gordon)의 음악적성검사들¹⁾은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고든 스스로 지적하듯이, 이러한 자료와 도구들은 서양음악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들일 뿐, 문화적 기반이 다른 타문화권의 음악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2년 현경실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한국에서 MAP(Musical Aptitude Profile)을 사용하기 위한 2년의 예언적 연구”에서 고든의 음악적성검사를 통해 한국 음악적성을 측정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²⁾ 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든이 만든 음악적성검사인 MAP과 자신이 만든 음악성취검사인 ADMAT(Aural Dictation Music Achievement Test)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음악적성과 서양음악적성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MAP이 한국 학생들의 서양음악적성을 측정할 수는 있으나 한국음악적성은 측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국음악적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³⁾

본 연구의 목표는 첫째, 고든의 음악적성 검사를 사용하여 한국음악적성을 측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음악적성과 연주능력 성취도인 실기시험 점수와 비교함으로써 고든의 서양음악적성 검사로 한국음악적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한다.

둘째, 조사집단의 적성검사 점수와 청음점수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음악적성과 기초음악성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다.

셋째, 조사집단의 적성검사 점수와 준거집단의 적성검사 점수자료를 비교한다.

넷째, 조사집단의 음악적 배경이 서양음악적성 수준에 영향이 있는지 조사한다.

1) PMMA(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 IMMA(Intermediate Measures of Music Audiation), AMMA(Measures of Music Audiation), MAP(Musical Aptitude Profile)

2) 이 연구들은 1993년과 1994년 2차례에 걸쳐 한국 국악교육학회에서 발표 되었음.

3) Kyungsil Hyun Jung “A two-year predictive validity study of the musical aptitude profile for use in KOREA”. Doctor of Philosoph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graduate board. 1992.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음악적성과 음악성취

1) 음악적성

모든 사람이 지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음악적 소질을 가지고 있다. 다시말해 누구나 음악적일 수 있다.⁴⁾ 이러한 음악적성이 선천적인 능력에서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여러 세기동안 많은 학자들은 명백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고든은 선천적 요인을 수용하면서 다시 유동적 음악적성(Developmental music aptitude)과 고정적 음악적성(Stabilized music aptitude)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⁵⁾ 또한 음악적성이 만 9세가 지나면 그 후에 음악을 배우더라도 별로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때 만 9세까지의 음악적성을 그 수준이 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유동적 음악적성이라 부르고, 만 9세 이후에는 더 이상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에서 고정적 음악적성이라 정의한다. 즉, 음악적성은 학습 이전의 개인이 갖고 있는 음악적 잠재력과 연령에 따른 신체적, 지적 성숙, 그리고 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로 이루어진다⁶⁾는 말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음악적성이란 타고나는 음악적 잠재력이 출생 이후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얼마만큼 발달하느냐에 좌우된다.

2) 음악성취

음악성취는 음악의 구성 요소나 개념들을 교육반응으로 인해 생겨난 능력이다.⁷⁾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 시대에 이루어진 대위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면서 태어나지는 않는다. 그것은 배워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음악성취이다. 반면에 인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든 덜 효과적이든 전 시대 양식의 대위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은 배워지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바로 음악적성이다.⁸⁾

4) Edwin E. Gordon, Learning Sequences in Music(Skill, Content, and Patterns. A Music Learning Theory). Fifth Editions. Chicago : G. I. A. Publications, 1989. p. 2.

5) 조효임, 최은식, 정진원, '한국 초등학생의 음악적성에 관한 연구(고든의 중급 음악적성검사에 근거하여)'. 한국음악교육학회 : 음악교육연구 제 15집. 1996. p. 444.

6) 조효임, 최은식, 정진원, Ibid., p. 438.

7) Ibid., p. 444.

높은 음악성취를 보이는 학생이 높은 음악적성을 지닌다고 해서 낮은 음악성취를 보이는 학생이 낮은 음악적성을 보여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자연스러운 음악 지도나 또는 형식적(학교나 학원을 통한) 음악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음악성취를 보이지만 높은 음악적성을 지닌 학생들도 있다. 낮은 음악성취를 보이지만 높은 음악적성을 지닌 학생들이 제때에 적당한 음악 지도와 교육을 받는다면, 현재의 높은 음악적성과 음악성취를 지닌 학생들보다도 더 성공적일 수 있다.

2. 오디에이션

아이들은 그림책을 통해 비행기 그림을 보고 엄마의 입을 통해 '비행기'라는 단어를 익히게 된다. 그 후에 언젠가 아이들은 실제로 커다란 비행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때 아이들의 머리에서는 '비행기 그림'과 '비행기'라는 단어가 연상 작용에 의해 떠오르면서 눈에 보이는 실제의 커다란 비행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언어'가 가지는 의미 형식의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음악을 들을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고든은 그것을 오디에이션이라 칭하였다. 즉, 오디에이션은 말을 사고하는 것과 같이 음악을 사고하는 것이다.⁹⁾ 다시 말해, 사람이 음악을 배우는 과정과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비슷하다.

또, 건축, 회화, 조각 등을 감상할 때 우리는 전체의 느낌을 먼저 받고 그 다음 단계로 부분을 본다. 그러나, 음악, 연극, 시 등을 감상할 때는 한번에 전체를 볼 수가 없다. 이들 예술들은 시간속에서 계속 흐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간예술의 특성상, 음악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접하는 음악의 각 부분들을 저장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오디에이션은 이렇듯 음악의 각 단위들을 의미있는 전체로 재생해 내는 데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음악성이 좋다고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의 오디에이션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하는 것은 같은 의미이다.¹⁰⁾

고든은 오디에이션을 여덟 개의 유형(Type)과 각 유형별로 위계적, 순환적 과정에 의해 일어나는 여섯 개의 단계(Stage)로 구분짓고 있다. 오디에이션은 단계적, 점층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지고 각 단계들은 위계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¹¹⁾

8) Edwin E. Gordon, Ibid., p. 3.

9) Ibid., p. 3.

10) 최은식, '학습활동의 위계화를 통한 음악학습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1. p. 21.

11) 방금주, '조기교육을 위한 고든의 음악학습이론', 음악교육연구 제 13 집, 한국음악교육학회, 1994. p. 127.

3. 음악적성검사

1) 고든적성검사

음악적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음악적성 측정에 관심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1890년대에 스템프(Stumpf)를 비롯하여 레베즈(Revész, 1985), 메인 웨링(Mainwaring 1931), 룬딘(Lundin 1944 : 1947) 등에 의해 만들어진 표준화되지 않은 초창기의 음악적성검사들부터 1919년의 시쇼어(Seashore)에 의해 최초의 표준화된 음악소질검사(The Seashore Measure of Music Talent)가 나타나고, 뒤이어 1960년대 윙(Wing)의 음악지능검사(The Standard Tests of Musical Intelligent), 크발바쎄(Kwalwasser)와 다이크마(Dykema)의 음악검사(Kwalwasser-Dykema Music Test), 1933년에 드레이크(Drake)의 음악적성검사(Drake Music Aptitude Tests), 1966년의 벤틀리(Bentley)의 음악능력검사(Measure of Musical Abilities) 그리고, 1965년부터 지금까지 고든(Gordon)의 음악적성검사(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 Intermediate Measures of Music Audiation, Advanced Measures of Music Audiation, Musical Aptitude Profile)에 이르기까지 많은 적성검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시쇼어의 음악적성검사를 비롯한 표준화된 음악적성검사들은 다음과 같다.

(1) 시쇼어의 음악소질검사¹²⁾

시쇼어는 음악소질검사의 선구자로서 음악교육을 받기 이전의 기초적 음악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최초의 표준화된 음악적성검사를 1919년에 만들었다. 음악적 재능이 순수한 소리를 지각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고, 순수 악기가 아닌 전자악기(Audio Oscillator)를 사용하여, 음악적인 관점이 아닌 음향적인 관점에서 검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음악적성을 소리의 물리학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분리하였다. 음의 높낮이, 크기, 시간, 음색의 네 가지 음향학적 검사와 리듬과 음기억의 검사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원자론적(Atomistic) 접근에 의한 연구이다. 그러므로, 각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시쇼어의 검사는 그것을 총괄적으로 판단해 줄 요소가 없으며, 음높이 검사에서 비교하는 두 음의 차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또한 음기억 검사에서는 지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평가라고 비판받았다. 그리고 시쇼어와 뒤를 이은 많은 학자들의 실험사이에서 검증한 결과 신뢰도에 있어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시쇼어의 음악소질검사는 최초로 음악적인 능력을 측정하기

12) Edwin E. Gordon. 'The Nature Descrip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Music Aptitudes', Chicago: G.I.A. Publications. 1986. pp. 19-20.

위한 표준화된 검사이며 객관적인 실험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어 향후의 음악적성검사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크겠으나, 음악적성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음향학적 측면에서 제작된 청각 지각력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평가할 수 있다.

(2) 윈의 음악지능검사¹³⁾

시쇼어 검사 이후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으로 많은 음악적성검사들이 나왔다. 그 중 1960년 영국의 윈이 만든 검사가 대표적이다. 음악적성과 지능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총체적 요인(Gestalt)의 영향을 받아 음악을 학습하는데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인 음악적 요소들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검사의 예제 문항들을 기존의 음악 작품들에서 선택하여 실제 악기인 피아노를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각각의 하위문제들을 분리하여 점수를 내었던 시쇼어의 검사와는 달리 종합점수로 평가했다. 비선호도와 선호도로 나뉘어 평가하고 있는 윈의 검사의 내용은 화음분석, 음고의 변화, 음기억으로 이루어진 비선호도 문제 세 문제와 리듬적 엑센트, 화성, 음의 썸머림, 악절감으로 이루어진 선호도 문제 네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시쇼어의 검사와 다른 점은 보다 음악적성을 평가하는 검사에 가까워졌다는 점과 음악적인 선별 능력이 시쇼어에 있어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것에 반해 윈의 검사에서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윈의 음악적성검사는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리듬적 엑센트, 화성, 음의 썸머림, 악절감의 선호도 검사가 기존의 음악 작품들을 이용하고 있고, 검사에서의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이 음악적 학습을 받아야만 생겨나는 개념들이라는 점에 음악적성을 평가한다기보다 음악성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3) 크발바썸와 다이크마의 음악검사¹⁴⁾

시쇼어의 검사보다 더 청감각적 요소들을 측정하는 데 노력했던 크발바썸와 다이크마의 음악검사는 음의 보존 영역만 제외하고는 시쇼어의 검사 내용과 같이 음고, 강세, 길이, 리듬, 음색을 포함하고 있는 검사로서 그 외에 네 가지 영역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있다. 음정의 이동, 선율적 취향, 음고연상(Tonal Imagery), 리듬연상(Rhythm Imagery)이 그것이다. 이 검사는 시쇼어의 것보다 지루하지 않고 높은 신뢰도를 보여 널리 사용되었다.

13) Edwin E. Gordon, "The Nature, Descrip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Music Aptitudes" Chicago: G.I.A. Publications. 1987. pp. 29-39.

14) 조효임, 최은식, 정진원, Ibid., p. 441.

(4) 드레이크의 음악적성검사¹⁵⁾

드레이크의 음악적성검사는 1933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여 약 40여년간 이용되었던 것으로써, 최초로 음악적인 재료들을 사용했던 검사이다. 이 검사는 음악적인 기억력을 살펴보는 검사였다.

(5) 벤틀리의 음악능력검사¹⁶⁾

1966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7-1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인 벤틀리의 음악능력 검사는 내용적인 면에서 시쇼어와 웅 검사의 양면을 채용하고 있다.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였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음감 구별 검사, 화음 분별 검사, 멜로디 기억력 검사, 리듬 기억 검사의 네 가지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고든의 음악적성검사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장기간의 실험과 연구를 근거로 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으며 그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대체로 합리적이다.

(1) 초급음악적성검사(PMMA-Primary Measure of Music Audiation)와 중급음악적성검사(IMMA-Intermediate Measures of Music Audiation)¹⁷⁾

초급음악적성검사는 5세에서 8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유동적 음악적성을 측정하는 검사로써 음감에 관한 부분과 리듬에 관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부분은 40문항씩을 포함하고 있다. 시쇼어의 음악소질검사가 문항의 뒤로 갈수록 난위도를 어려워지도록 구성한 데 비해서 고든의 음악적성검사의 각 부분 40문제는 난위도를 골고루 분포시키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답안지를 사용하며, 신세사이저(Sonic Six Moog Synthesizer)로 연주가 된 음악을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음감 검사(Tonal Test)와 리듬감 검사(Rhythm Test)의 두 경우 모두에서 검사의 신뢰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초급음악적성검사가 발표된지 2년후에 보다 진보된 형태의 검사인 중급음악적성검사가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초급음악적성검사가 9세, 10세의 어린이들에게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그 난이도를 보완한 것이다. 이 검사 또한 유동적 음악적성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초급음악적성검사와

15) Edwin E. Gordon, 'The Nature, Descrip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Music Aptitudes'. Chicago : G. I. A. Publications. 1987. pp. 31-32.

16) Ibid., pp. 43-45.

17) Ibid., pp. 145-154.

동일하나 난이도면에서만 차이가 있다.

두 가지 검사 모두 다른 날 음감 검사와 리듬감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침하고 있다. 음감 검사와 리듬감 검사는 다른 날 시행하되 한 주 안에 하는 것이 좋으며 길어도 두 주를 넘어서면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녹음되어진 지시사항(direction)을 듣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교사가 책에 쓰여진 지시사항을 현장에서 읽어주도록 한다.

고든의 적성검사의 주목적은 매우 높은 음악적성을 가진 아이들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다.

(2) 고급음악적성검사(AMMA-Advanced Measures of Music Audiation)¹⁸⁾

고정적 음악적성 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써 음악 전공자들을 비롯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해 개발된 음악적성검사이다. 음감검사와 리듬감 검사로 구분된 30개의 문제로 16분동안 실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두 개의 선율 패턴을 듣고 음감이 다른지, 리듬감이 다른지, 또는 두 개의 선율패턴이 같은지를 찾는 문제이다. 음악적 예들은 고든이 직접 작곡하여 만든 음악으로써, 신디사이저로 녹음한 것들이다.

(3) 음악적성 프로파일(MAP-Musical Aptitude Profile)¹⁹⁾

고급음악적성검사와 같이 고정적 음악적성 단계에 있는 9-17세의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사이다. 고급음악적성검사가 음감 검사와 리듬감 검사 두 부분으로만 나뉘어져 있는 것에 비해 음악적성 프로파일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40문항으로 이루어진 멜로디와 화성을 다루는 음감적 연상과 각각 40문항으로 이루어진 빠르기와 박자를 다루는 리듬적 연상, 그리고 각각 30문항으로 이루어진 프레이징, 균형, 형식을 다루는 음악적 민감성(Musical Sensitivity) 세부분의 총 2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일곱 개의 부분들을 검사하는데 소유하는 시간은 약 15분씩 걸린다. 따라서, 음악적성 프로파일 검사는 3일에 나누어 실시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삼고 있다. 답을 모를 경우 추측하는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답안 문항에 'in doubt'를 첨가시켜 놓은 점이 특이하다. 음악적 예들은 고든이 직접 작곡하여 만든 음악으로써,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와 첼로 연주자가 녹음한 것을 사용했다. 음악적성 프로파일은 3년의 실험결과 신뢰도와 타당도에 있어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어린 학생들이 검사하기에는 지시사항이나 답 표기 방법이 어려우며, 3일이라는 장기간의 검사 기간을 요한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18) Edwin E. Gordon, 'Manual for the Advanced Measures of Music Audiation'. pp. 15-19.

19) Edwin E. Gordon, 'Learning Sequences in Music(Skill, Content, and Patterns. A Music Learning Theory'. Fifth Editions. Chicago : G. I. A. Publications. 1989. pp. 133-144.

4. 고든의 음악적성 검사에 관한 선행연구

본 연구의 선행연구를 하면서, 서양음악적성검사로 타문화권의 음악적성을 측정해 본다면, 자체적인 개발로 만든 검사를 이용하여 적성을 측정하는 연구가 종종 있어 왔다. 1993년 현경실이 고든의 음악적성검사인 고급음악적성검사의 한국에서의 사용가능성을 서양음악전공 예술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고급음악적성검사가 대상학생들에게 신뢰도나 문항별별도를 고려해 볼 때 적어도 연구대상 그룹에게는 좋은 검사가 되지 못하기에 이 결과만을 고려하면 고급음악적성검사의 한국에서의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렸다.²⁰⁾ 또한, 현경실은 1993년과 1994년에 걸쳐 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든이 만든 음악적성검사인 음악적성 프로파일과 자신이 만든 음악성취 검사인 음악성취검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음악적성과 서양음악적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연구하였다. 그리하여, 음악적성 프로파일이 한국 학생들의 서양음악적성을 측정할 수는 있으나 한국음악적성은 평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국음악적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²¹⁾ 그밖에 1996년 조효임, 최은식, 정진원이 서울 교대 부속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든의 음악적성검사인 중급음악적성 검사를 실시해 중급음악적성 검사가 한국 아동의 서양음악적성을 측정하는 데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²²⁾ 그리고, 1994년 “음악적성도와 음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라는 임은애의 석사논문을 보면 6세 아동들에게 음악적성검사인 초급음악적성검사를 실시하고 본인이 작성한 음악성취검사 실시 결과와 비교하여, 음감과 리듬감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음악적성이 높을 수록 음악성취도가 높으며, 음감 적성과 음감 성취도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데 비해 리듬 적성과 리듬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낮다고 결론을 지으며, 객관화된 성취도 검사도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²³⁾ 그밖의 외국에서의 고든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프로세스(J. Froseth)²⁴⁾는 악기를 배우기로 한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음악적성 프로파일을 실시하게 한 뒤 그 결과를 한 그룹의 교사에게는 학생들의 점수를 알려주고, 나머지 한 그룹의 교사에게는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1년간 악기수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교사가 학생들의 점수를 알고 있지 않았던 그룹보다 알고 있었던 그룹의 성취도가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음악적성 검사가 바람직하게 이용될 경우 음악학습에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

20) 현경실, '한국 학생들에 대한 AMMA 사용 가능성 조사연구', 한국음악교육학회 : 음악교육연구 제 12집, 1993.

21) Kyungsil Hyun Jung, Ibid.

22) 조효임, 최은식, 정진원, Ibid.

23) 임은애, '음악적성과 음악성취도간의 상관관계(6세 어린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학과, 1994.

24) J. Froseth, 'Using MAP scores in the instruction of beginning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9. 1971., pp. 98-105.

음을 보여주는 실험이었다. 드아멘(R. De Yarman)²⁵⁾은 5-6세 아동을 대상으로 초급음악적성검사를 실시한 후, 약 6개월간 청각 훈련과 관계된 학습을 시켰다. 그 후 다시 초급음악적성검사를 실시하여 학습을 받지 않은 다른 집단의 아이들과 비교를 하였다. 이 결과, 6세 아동에 비해 5세 아동들에게서 학습에 의한 변화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즉, 만 9세가 되면 음악적성이 고정된다는 고든의 이론에 비추어볼 때, 6세부터 아동의 음악적성이 고정되는 양상을 보임을 보여주는 실험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고든의 초급음악적성검사의 난이도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초급음악적성검사의 난이도에 대한 검증으로 고든 자신의 실험²⁶⁾을 들 수 있다. 다른 환경의 두 집단에 속해 있는 5-8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초급음악적성검사를 실시한 실험에서, 고든은 초급음악적성검사가 유동적 음악적성을 측정하기에는 너무 쉽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든은 이 실험에서 한 집단은 사립학교에서 질 좋은 음악학습을 받고, 풍부한 음악적 환경 안에 있는 아이들과 또 다른 한 집단은 일반 공립학교에서 평범한 음악학습을 받으며 풍부한 음악적 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아이들로 설정했다. 실험 결과, 사립학교 아이들의 점수가 공립학교의 아이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초급음악적성검사의 점수가 준거집단의 점수보다는 두 집단 모두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음악학습을 받은 아이들의 초급음악적성검사의 점수가 준거집단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초급음악적성검사의 난이도가 너무 쉬움을 보여준 결과였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두 집단의 점수의 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음악적성이 만 9세가 되면 고정된다는 이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집단

조사집단으로 서울시내에 소재한 한국음악을 전공하는 예술고등학교 (집단A) 3학년 음악전공학생 82명(남학생 11명, 여학생 71명)과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예술고등학교 (집단B) 3학년 음악전공학생 197명(남학생 18명, 여학생 185명 중 한국음악전공 8명, 서양음악 전공 18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5) R. De Yarman, 'An investigations of the stability musical aptitude among primary-age children', Experimental Research in Psychology and Music., 10. 1975. pp. 1-23.

26) Edwin E. Gordon, 'Developmental music aptitude as measured by the 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 Psychology of Music., 7(1), 1979.

<표 1> 연구집단

	집단A	집단B	Total
n	82	197	261
%	28.328	71.672	100

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고든의 고급음악적성검사(Advanced Measures of Music Audiation)와 집단A 그리고 집단B의 실기시험 점수와 청음점수, 그리고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1) 고든의 고급음악적성검사

음감 검사와 리듬감 검사로 구분된 30개의 문제로 16분동안 실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각각의 문제는 애플 맥킨토시 컴퓨터로 만들어졌으며, 야마하 신디사이저(Yamaha DX-7 Synthesizer)로 프로음악인이 연주한 것을 녹음하였다. 문제로 쓰이는 선율패턴들은 이 검사를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들이다. 각 질문당 두 개의 선율패턴을 듣고 두 개의 선율패턴이 같은지 다른지, 다르다면 음감이 다른지 혹은 리듬이 다른지, 각 질문에 제시되는 세가지의 선택사항(동일 "same", 음감 "tonal", 리듬감 "rhythm") 중 고르게 된다.

검사에 임하기 전에 검사실행 지침이 설명되며, 곧이어 3개의 연습문제 "practice"가 주어진다. 첫 번째 연습문제는 두 개의 선율패턴이 리듬이 변화되어 나타나고, 두 번째 연습문제는 두 개의 선율패턴이 음과 리듬이 동일하게 제시되며, 마지막 세 번째 연습문제는 음감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답안지에 제시된 "practice"라는 단어 밑의 1번에는 "rhythm"에, 2번에는 "same", 그리고 3번에는 "tonal"이라고 3개의 연습문제의 답을 채워야 한다. 3개의 연습문제를 시행한 뒤, "Begin"이라고 쓰여진 단어의 밑부터 실험문제를 풀게 되어 있다.

검사 테이프의 검사문항에 관한 설명과 검사지침이 본인에 의해 한국어 번역판이 사용되었으며, 검사의 모범답안은 본인이 청음을 하여 얻어냈다. 학생들이 사용할 답안지와 테이프는 원본이 사용되었으며, 개인별 검사결과는 개개인별로 통지되었다.

점수산출은 본인이 고급음악적성검사의 지침서의 도표를 보고 수작업에 의해 원점수와 백분위 점수로 구하였다.

2) 음악성취검사 - 실기시험

음악성취 측정검사인 집단A와 집단B의 실기시험 점수는 각 학교별 음악 담당 강사들의 채

점결과를 사용하였다. 집단A의 실기시험은 5월 8일에 정악과 산조로 나뉘어 각각 100점 만점으로 실시되었으며, 집단B의 실기시험은 7월 1일에 각 전공별로 나뉘어 각각 100점 만점으로 실시되었다.

3) 음악성취검사 - 청음시험

기초음악성 측정점사라 할 수 있는 청음점수 자료가 고든의 고급음악적성점사의 결과 점수와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집단A의 한국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한국음악으로 청음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청음 수업을 하듯이 피아노를 이용하여 학습한다. 집단A와 집단B가 실시한 청음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계산된 결과이다.

집단A의 청음문제는 다장조로 이루어진 단선율 8마디 3/4박자와 단선율 13마디 4/4박자의 두 문제로 단순한 리듬꼴과 몇 개의 임시표가 첨가되어 있다.

집단B의 청음문제는 단선율 8마디 세문제와 2성부 8마디 한문제로 이루어져 있다. 라장조 4/4박자, 다장조 4/4박자, 가장조 3/4박자로 이루어진 단선율은 다양한 리듬꼴과 음정을 섞어 상·중·하의 level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으며, 2성은 6/8박자 가단조의 곡이다.

<표 2> 청음문제 비교

	집단A	집단B
문제	단선율 2문제	단선율 3문제 2성부 1문제
마디수	8마디+13마디	8마디+8마디+8마디+8마디
조성	다장조+다장조	라장조+다장조+가장조+가단조
박자	3/4+4/4	4/4+4/4+3/4+6/8
리듬꼴	♪ + ♩ + ♩ ♩ + ♩ + ♩ +당김음	♪ + ♩ + ♩ ♩ + ♩ + ♩ +당김음 ♩ + ♩ + ♩ + ♩ +당김음⇒이 리듬꼴의 변화형들

집단A와 집단B의 청음문제를 비교해 볼 때 즉, 집단A의 청음문제 수준은 집단B에 비해 문제수의 차이, 조성의 선택, 리듬꼴 문제, 그리고 음감적인 면에서 수준이 낮음을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설문지

학생 개인의 음악적 환경을 알아보고자 검사 실시 후 약 5분에 걸쳐 본인이 제작한 일곱문항의 설문지가 실시되었다.

각 질문을 살펴보면, 질문1은 예고를 입학하기 전에 다른 음악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하여 물어봄으로써, 집단A 학생들이 국악기를 배우기 이전에 서양악기를 배워본 경험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질문2는 현재 전공하는 악기를 배우는 지 몇 년이 되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이 질문을 통해 음악 학습을 받은 기간이 음악적성과 음악성취 점수사이의 관련성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질문3은 기초음악성에 해당되는 청음을 과외로 학습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외 학습을 받은 학생들이 과외 학습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집단보다 고급음악적성검사와 기초음악성과의 상관관계에서 어떠한 결과를 보일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질문4는 전공레슨의 횟수를 물어보는 것으로써, 전공레슨을 많이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실기시험에서 어떠한 결과를 보일지 알고자 낸 질문이었다.

질문5는 검사자들 본인이 자신에게 음악적 소질이 얼마만큼 내재해 있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어 본 것으로써,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음악적 소질에 대한 판단이 얼마만큼 객관적인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질문6은 예술고등학교 생활동안 자신의 음악적인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으로써, 질문5와 같이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음악적인 능력에 대한 판단이 얼마만큼 객관적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이었다.

질문7은 본 검사의 난이도에 대하여 묻는 질문이었다.

3. 연구절차

음악성취검사인 실기시험과 청음시험 검사 도구는 이미 취해진 결과들을 가지고 실시했으며, 음악적성검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행해졌다.

1) 검사 실시방법

검사 실시 전 각 학교의 음악부 교사들과 본인이 검사 실시 방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각 반별로 정해져 있는 수업일지와 학교 행사표의 여건상 전 집단이 동시에 모여 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리하여, 집단A는 일반 수업시간에 학급단위의 검사를 실시하기로,

집단B는 본래의 학교 음악 수업시간에 두 학급단위의 검사를 실시하기로 예정되었다.

검사의 실행은 실음테이프이므로 각 학급별로 테이프가 제공되어, 비치되어 있는 카세트녹음기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듣게 하고, 답안지에 답을 연필로 표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검사실시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5분동안 실행하도록 하였다.

2) 검사일시 및 장소

음악적성 검사가 두 개의 다른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각 학교별 상황에 따라 동일날 동일시간에 실행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집단A는 6월 26일 오전 8시 50분과 9시 50분에, 두개의 음악반이 학급별로 각각의 교실에서 실시되었으며, 집단B는 7월 15일 오전 11시 30분과 12시 30분에 4개의 음악반이 두반 단위로 묶여 두 개의 음악실에 나뉘어 시행되었다.

<표 3> 검사일시 및 방법

	날짜	시간	방법
집단A	6월 26일	오전 8시 50분과 9시 50분	한반씩
집단B	7월 15일	오전 11시 30분과 12시 30분	두반씩 분반

3) 시검자

학급단위 집단검사이나, 집단A는 학급별 일반수업시간을 이용하므로 담당교사 한분과 본인이 시검자로 임했으며, 집단B는 두 학급별 동일한 음악시간을 이용하므로 음악부 교사 한 분과 본인이 두번에 걸쳐 시검자로 임했다. 검사 실시 전에 검사의 목적과 의의, 검사문항의 구성과 특성, 검사진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학생들과 교사에게 사전교육이 2회 실시되었다.

4. 분석방법

검사결과는 맥킨토시용 통계프로그램인 '스탯뷰(Statview)'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1) 검사결과의 산출

본 연구가 가졌던 질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각각의 통계방법들이 사용되었다.

고든의 서양음악적성 검사로 한국음악적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진단하는 질문

에서 직률상관관계(Pearson r)가 사용되었다.

이 질문에 부가적인 질문으로 첫째, 음악적성과 기초음악성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자 하는 질문에서도 위와 동일한 직률상관관계가 사용되었다.

둘째, 조사집단의 적성검사 점수와 준거집단인 미국학생들의 적성검사 점수자료를 비교하는 질문에서 평균 및 표준편차에 의한 검사가 이루어졌다.

셋째, 한국음악과 서양음악이 음악적성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t-test로 검증이 이루어졌다.

넷째, 학생들의 음악적 배경이 서양음악적성 수준에 영향이 있는지 조사하는데 있어, 각 학교별 설문지 응답결과를 백분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검사결과와의 비교

검사결과를 각 집단별로 산출하여 각각의 점수들과 비교하였다.

IV. 결 과

1. 조사집단

본 연구는 서울에 있는 집단A와 집단B 3학년 학생(n=261)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 한국음악을 전공하는 집단A의 전체비율이 28.328%(n=82)이다. 그리고, 집단B의 전체비율은 71.672%(n=197)이며, 이 중 서양음악 전공은 68.607%(n=171), 한국음악 전공은 3.065%(n=8)였다.

<표 4> 전공별 분류

	집단A		집단B	
	n	%	n	%
기악	74	90.244	158	80.203
성악	4	4.878	35	17.766
작곡	4	4.878	14	7.106
Total	82	100	197	100

각 학교 학생들의 전공분야를 살펴보면, 집단A의 대다수(90.244%)가 기악전공이다. 집단A에 비해 10%정도는 부족하지만 집단B도 4/5(80.203%)의 수가 기악전공이다. 이에 반해 집단A의

성악과 한국음악 전공이 매우 적은 수(각각 4.878%)를 보였으며, 집단B 또한 약 1/4의 수가 성악(17.766%)과 작곡(7.106%)을 전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고급음악적성검사 결과

1) 전체 조사집단의 고급음악적성검사의 결과

3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고급음악적성검사는 음감 검사와 리듬감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 40점이 만점이며 따라서, 80점이 종합점수이다. 각각의 원점수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1점에서 99점까지의 분포로 이루어진 백분위 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표 5>는 고급음악적성검사에 참여한 전체 조사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표 5> 고급음악적성검사 점수

	집단A		집단B	
	$\bar{X}$	SD	$\bar{X}$	SD
Tonal	88.817	11.419	83.128	19.934
Rhythm	95.329	9.461	92.379	19.028
Composite	92.646	6.407	88.502	18.195

조사집단의 고급음악적성검사의 실시결과에서 집단A의 음감 점수(Tonal)는 평균 88.817점, 리듬감 점수(Rhythm)는 평균 95.329점, 종합 점수(Composite)는 평균 92.646점이다. 집단B의 음감 점수는 평균 82.128점, 리듬감 점수는 평균 92.379점, 종합점수는 평균 88.502점이다.

즉, 서양음악적성 검사 실시 결과, 집단A가 음감 점수에 있어 평균 5.5점을, 리듬감 점수에서 평균 3점을, 그리고 종합 점수는 평균 4점 이상의 점수를 집단B의 서양음악 전공 학생들보다 높이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급음악적성검사에 대한 표준편차를 보면, 집단A가 집단B보다 음감 검사와 리듬감 점수 모두에 있어 매우 적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들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음악을 전공하는 집단A가 집단B보다 전반적으로 서양음악적성 평가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집단의 음감 검사와 리듬감 검사를 비교해 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리듬감 검사가 음감 검사보다 매우 높게 나왔으며, 표준 편차에 있어서도 리듬감 검사의 표준편차가 음감 점수의 표준편차보다 낮다. 이것은 리듬감 검사가 음감 검사보다 음악적성을 변별해내는 능력이 작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두 집단 모두 평균 원점수로부터 비교적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므로, 조사집단의 개인적인 실력차가 비교적 차이가 없이 비슷하다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표 6> 음감과 리듬감에 대한 집단별 검사결과의 차에 대한 변량 분석 결과

		n	$\bar{X}$	t Value	Prob.(2-tail)
집단A	음감	82	88.817	-2.432	.0156
	리듬감	82	95.329		
집단B	음감	197	83.128	-1.34	.1813
	리듬감	197	92.379		

<표 6>은 각 집단별 점수의 차가 우연에 의한 것인지 또는 의미있는 차이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변량 분석결과($\alpha=.05$)로서, 검증한 결과 음감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p=.0156$)하며 리듬감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p=.1813$)하지 않다.

2) 고급음악적성검사와 실기시험과의 상관관계 결과

<표 7>은 음악적성과 연주능력 성취검사인 실기시험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이다. 고급음악적성검사에서 집단A가 집단B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었던 것과는 달리, 고급음악적성검사와 실기시험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집단B가 집단A에 비해 상관관계에 있어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집단A와 집단B 모두 상관관계가 너무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결과로 단정하기란 어렵다.

<표 7> 고급음악적성검사와 실기시험 점수와의 상관관계

	comp./실기	tonal/실기	rhythm/실기
집단A(정악)	-0.043	-0.071	-0.024
집단A(산조)	-0.022	-0.066	0.01
집단B	0.148	0.095	0.175

3) 고급음악적성검사와 청음시험과의 상관관계 결과

<표 8>은 학생들의 적성검사 점수와 청음점수를 비교하여 음악적성과 기초음악성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본 것이다. 그 결과 집단B가 집단A에 비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8> 고급음악적성검사와 청음점수와의 상관관계

	comp./시.청	tonal/시.청	rhythm/시.청
집단A	0.144	0.151	0.073
집단B	0.275	0.201	0.281

학교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집단A는 음감 점수에 있어서, 집단B는 리듬감 점수에 있어서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하지만, 이 상관관계 또한 매우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결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

4) 조사집단의 고급음악적성검사 결과와 준거집단의 고급음악적성 검사 결과와의 비교

고든은 고급음악적성검사의 준거집단을 세 부류로 나누어 실시한 뒤 그 결과자료들을 고급음악적성검사의 지침서에 기록해 놓았다. 세 부류란,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대학생 그리고, 일반 고등학생이다. 고든은 고급음악적성검사 지침서에 이들 준거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 음감 및 리듬감 검사의 상관관계 등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집단인 집단A와 집단B의 적성검사 결과와 미국의 준거집단인 일반고등학교 학생들과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적성검사 결과를 <표 9>에서 비교하였다.

집단A와 집단B의 적성검사 점수와 준거집단의 적성검사 점수자료를 비교한 결과, 음감 검사에 있어서 평균은 집단A나 집단B가 준거집단보다 월등히 높으나 표준 편차에 있어서는 집단A가, 그 다음으로 준거집단이 그리고, 집단B의 순으로 그 수치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의 음감에 관한 개인차가 집단A가 가장 적고 그 다음으로 준거집단이 그리고, 집단B의 순인 것이다. 리듬감 검사 결과도 음감 검사와 마찬가지로 조사집단의 평균 점수가 준거집단의 평균 점수보다 매우 높다. 또한, 표준 편차의 비교에 있어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종합점수에 있어서는 평균 및 표준 편차가 집단A, 집단B, 준거집단 순으로 나타남을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9> 조사집단과 준거집단의 적성검사 점수 비교

	comp.		tonal		rhythm	
	$\bar{X}$	SD	$\bar{X}$	SD	$\bar{X}$	SD
집단A	92.646	6.407	88.817	11.419	95.329	9.461
집단B	88.502	18.195	83.128	19.934	92.379	19.028
미국(일반고등)	63.250	22.058	59.500	12.186	67.000	11.238
미국(전공자대학생)	73.875	20.659	70.750	11.486	77.000	9.813

3. 설문지 결과

고급음악적성검사 실시 후 치루어진 설문지 조사에서 얻어진 것이다.

전공악기 이외의 음악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는 첫 번째 질문에, 집단B는 다른 음악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에 거의 절반(45.685%)이 답했으며, 집단A는 거의 대부분(87.805%) 이 답을 했다.

<표 10> Sub. 1

	집단A		집단B	
	n	%	n	%
Yes	72	87.805	90	45.685
No	10	12.195	107	54.315
Total	82	100	197	100

전공악기를 몇 년동안 학습하고 있느냐는 두 번째 질문에서는, 집단B는 8년 정도 학습한 수가 절반(51.269%)을, 집단A는 6년정도 학습한 수가 약 3/4(70.732%)의 가장 많은 수를 보였다.

<표 11> Sub. 2

	집단A		집단B	
	n	%	n	%
0-2년	1	1.22	8	4.061
2-4년	17	20.732	56	28.426
4-6년	58	70.732	32	16.244
6-8년	6	7.317	101	51.269
Total	82	100	197	100

과외로 시창, 청음이나 음악이론 레슨을 받고 있느냐의 세 번째 질문에 집단B는 약 1/4(24.873%)이, 집단A는 약 1/5(20.988%)이 답했다.

<표 12> Sub. 3

	집단A		집단B	
	n	%	n	%
Yes	17	20.988	49	24.873
No	64	79.012	148	75.127
Total	82	100	197	100

전공레슨을 일주일에 몇 회 받느냐는 네 번째 질문에 집단B는 2회 레슨을 받는다고 절반(51.777%)이, 1회 레슨을 받는다고 약 2/5(40.102%)가 답했으며, 집단A는 2회 레슨을 받는다고

약 3/4(74.39%)이 1회 레슨을 받는다고 약 1/5(21.951%)이 답했다.

<표 13> Sub. 4

	집단A		집단B	
	n	%	n	%
1회	18	21.951	79	40.102
2회	61	74.39	102	51.777
3회이상	1	1.22	16	8.122
무응답	2	2.439	0	0
Total	82	100	197	100

본인에게 음악적 소질이 얼마나 내내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의 다섯 번째 질문에 집단B는 약 2/3(67.005%), 집단A는 약 2/3(65.854%)의 수가 '보통이다' 라고 답하고 있다. 자신의 음악적 소질을 '높이 평가한다'는 집단B의 수는 약 1/4(24.873%), 집단A는 약 1/8(12.195%)의 수가, '별로이다' 라는 평가에 집단B는 매우 적은 수(7.614%), 집단A는 약 1/5(21.951%)의 수를 보였다.

<표 14> Sub. 5

	집단A		집단B	
	n	%	n	%
많다	10	12.195	49	24.873
보통이다	54	65.854	132	67.005
별로이다	18	21.951	15	7.614
무응답	0	0	1	0.508
Total	82	100	197	100

예고 생활 3년동안 본인의 음악적 소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여섯 번째 질문에 집단B와 집단A 모두 70.051%, 57.317%가 답했다.

<표 15> Sub. 6

	집단A		집단B	
	n	%	n	%
예	47	57.317	138	70.051
아니오	8	9.756	18	9.137
모르겠다	27	32.917	41	20.812
Total	82	100	197	100

본 검사의 난이도에 대하여 물어보는 일곱 번째 질문에서 '보통이다'라고 집단B는 약 3/4(73.604%)이, 집단A는 약 2/3(63.415%)이 답했다.

'어렵다'고 집단B는 약 1/6(15.736%)이, 집단A는 약 1/3(35.366%)이 답했으며, '쉽다'라고 집단B는 10.66%가, 집단A는 매우 적은(1.22%) 수가 답했다.

<표 16> Surv. 7

	집단A		집단B	
	n	%	n	%
어렵다	29	35.366	31	15.736
보통이다	52	63.415	145	73.604
쉽다	1	1.22	21	10.66
Total	82	100	197	100

V. 해석 및 결론

1. 해석

1) 조사집단의 고급음악적성검사의 결과

조사집단의 고급음악적성검사의 실시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A는 서양음악적성 검사 실시 결과에 있어 평균 3점 이상의 점수를 집단B의 서양음악 전공 학생들보다 높이 받았으며, 또한 분포도에 있어서도 집단A가 집단 B에 비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네가지 이유를 상정할 수 있겠다. 첫째, 한국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학습할 때 악보에 의존하기보다는 귀에 의존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서양음악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보다 청각적인 능력이 발달했으리라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급음악적성검사가 청각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둘째, 시험 당시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겠다. 집단A는 한반씩 각각의 교실에서 아침에 실시된 것에 반해, 집단B는 두반씩 큰 홀에 모여 점심시간쯤에 실시되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 하에 실시되었더라면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집단B의 고급음악적성검사의 결과가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집단B가 집단A와 점수차가 큰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동일한 조건하에서 실시되었더라도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집단B의 점수가 한국음악을 전공하는 집단A보다는 낮았을 것이다. 셋째, 전공분야를 살펴본 결과 집단A와 집단B 모두 대부분의 수가 기악을 전공하

는 학생들이었다. 특히 집단A는 집단B보다 더 많은 수가 기악 전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급음악적성검사의 음악예가 비록 전자악기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지만 악기의 소리에 가깝기 때문에 기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은 집단에서 유리하게 사용되었을 것이 예상된다. 넷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집단A가 집단B에 비해 훨씬 많은 수가 전공악기 이외의 음악 교육을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경험은 서양악기에 대한 학습으로써, 한국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이 서양음악을 전공한 학생들보다 훨씬 풍부한 음악적 경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두 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기 전에는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증해 본 결과, 음감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p=.0156$)하며, 리듬감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p=.1813$)하지 않았다.

2) 고급음악적성검사와 실기시험과의 상관관계 결과

음악적성과 연주능력 성취도인 실기시험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집단A와 집단B 모두 상관관계가 너무 낮게 나타나서 조사결과로 단정하기 힘든 경향을 보인다. 낮은 상관관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점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집단B의 점수가 한국음악을 전공하는 집단A보다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든의 고급음악적성검사가 서양음악을 측정하는 검사도구이기 때문에 이 도구를 가지고 한국음악을 측정하는 국악 실기시험과 서양음악 실기시험과 비교를 할 경우, 후자와 더 높은 상관관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결과들이 너무 낮게 나온 이유는, 실기시험이 청각적인 변별도를 측정한다기보다는 음악적 민감성 능력 또는 테크닉적인 면모를 주로 평가하는 것이기에 아마도 낮은 상관관계가 나왔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 고급음악적성검사와 청음시험과의 상관관계 결과

두 집단의 적성검사 점수와 청음점수를 비교하여 음악적성과 기초음악성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본 결과, 음악적성과 실기시험 점수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와 같이 집단B가 집단A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 상관관계 역시 낮지만 음악적성과 실기점수와의 상관관계보다는 높다. 아마도 그 이유는 고급음악적성검사가 서양음악에 대한 청각적 변별도를 측정하는 검사이며, 청음검사 또한 청각적 변별도를 측정하는 검사 중 하나이기에 청음 검사와의 상관관계에 있어 높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집단A보다 약 5% 이상의 집단B 학생들이 과외로 음악이론과 시창, 청음 레슨을 받고 있는 점이 이러한 결과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점수도 너무 낮기 때문에 서양음악적성 검사로 한국음악적성을 평가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또한, 각 집단별 특징을 살펴보면, 집단A는 음감 검사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집단B는 리듬감 검사에 있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점은 청음시험의 난이도에 의해 발생된 결과일 수도 있다. 두 집단의 청음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집단A의 청음문제는 집단B에 비해서 매우 낮은 난이도를 보였다. 집단A가 한국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지만 그들이 국악기를 전공하기 이전에 다른 서양악기를 배워본 경험이 대부분 있고, 한국음악 교육 자체가 귀에 의존된 학습이라는 것을 인식해 볼 때 집단A의 청음문제의 난이도는 매우 낮았다.

4) 조사집단의 고급음악적성검사 결과와 준거집단의 고급음악적성 검사 결과와의 비교

집단A와 집단B의 적성검사 점수와 미국학생들의 적성검사 점수자료를 비교한 결과, 음감과 리듬감 두 세부검사의 평균점수에 있어 한국학생들이 미국의 일반고등학교 학생이나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점수보다 높았다. 그러한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몇가지 추론가능한 원인은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는 이들 집단A와 집단B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들의 조기교육 및 음악교육열 등으로 인해 미국학생들에 비해 보다 풍부한 음악적 환경안에서 어릴적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들 집단들은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일정 기간 이상 받았음으로 음악성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또한, 고급음악적성 문항들이 특정한 문화에 특히, 한국의 음악문화에 민감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만큼 한국의 음악교육 여건이 서구와 차이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표준편차에 있어서는 조사집단인 한국 학생들이 준거집단인 미국의 학생들보다 종합점수에 있어서는 높았지만, 음감 점수와 리듬감 점수에 있어서는 한국음악을 전공한 집단A는 준거집단보다는 적게, 서양음악을 전공한 집단B는 준거집단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조사집단인 집단A는 준거집단인 미국의 학생들에 비해 구성원들이 동질적임을 알 수 있다.

5) 설문지 결과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조사집단의 음악적 배경이 서양음악적성 수준에 영향이 있는지 진단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공악기 이외의 음악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는 첫 번째 질문에 집단B의 서양음악 전공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집단A의 한국음악 전공 학생들이 전공악기 이외의 음악 교육을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A의 대부분 학생들이 예고를 입학하기 전에 서양악기를 교육 받았었다는 것을 첫 번째 질문의 두 번째 문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공악기를 몇 년동안 학습하고 있느냐는 두 번째 질문에서, 집단A는 4-6년동안 학습한 학생이 70%이고, 6-8년을 학습한 수가 매우 적은 수인 7.31%를 나타낸 것에 비해, 집단B는 6-8년

동안 학습했다고 답한 학생수가 반수가 넘었다. 이 점은 첫 번째 질문과 관련있는 것으로써, 한국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다른 악기를 배우다가 한국음악을 전공하게 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전공악기를 공부한 시간들이 집단B에 비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집단A는 국악예술중학교가 없는 관계로 국민학교부터 예중입시를 준비해야하는 배경이 없기에 이러한 연도수의 차이를 보이는 듯 하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음악을 전공하는 집단A는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에 대한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갖는 대신 지금 전공하고 있는 악기를 공부해 온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집단B보다 적으며, 집단B는 대부분이 피아노라는 서양악기에 대한 학습 이외에는 지금 전공하고 있는 악기를 집단A보다 더 오랜 시간 학습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급음악적성검사가 서양음악적성을 측정하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음악을 전공하는 집단A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음악적 배경이 아닌가 싶다.

과외로 시창, 청음이나 음악이론 레슨을 받고 있느냐는 세 번째 질문에 집단B는 전체 학생 중 1/4이, 집단A는 전체 학생 중 1/5의 수만이 과외로 이러한 학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약 5%의 숫자이지만 집단B가 집단A보다 시창, 청음이나 음악이론 레슨을 더 받고 있기 때문에 고급음악적성검사와 청음점수와의 상관관계 검증에서 집단B가 좁은 분포도를 보이는데 적게나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레슨을 일주일에 몇 회 받느냐는 네 번째 질문에 집단B는 1회나 2회 레슨을 받는 수들이 각각 절반씩을 보이는데 비해 집단A는 3/4의 수가 2회 레슨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더 많은 수의 집단A가 집단B보다 정기적으로 실기 레슨을 더 자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고급음악적성 검사에서 한국음악을 전공하는 집단A의 점수가 높게 나오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정악은 옛날 궁중음악으로써 전통적인 한국음악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에 반해, 산조는 개량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개화된 한국음악이다. 따라서, 한국음악을 공부하는 집단A는 좀 더 다양한 시각의 음악 학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인에게 음악적 소질이 얼마나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의 다섯 번째 질문에 집단B는 67.005%, 집단A는 65.854%가 '보통이다'라고 답하고 있다. 자신들이 매우 높은 음악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수는 한국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 서양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24%로 두배의 수를 보였다. 즉, 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적 소질에 대하여 평범하다고 여기면서 음악을 전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든의 고급음악적성검사의 준거 집단인 미국의 일반고등학생이나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에 비하여 높은 음악적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음악적성을 평범하다고 여기는 것은 서양음악 문화와 너무나도 유사한 환경안에서 한국의 음악적 환경이 설정되어 있고, 또한 한국의 음악 문화와 교육열이 얼마나

양호한지 짐작하게 해주는 결과였다.

예고 생활 3년동안 본인의 음악적 소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여섯 번째 질문에 집단B와 집단A 모두 70.051%, 57.317%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의 조사집단들이 예술고등학교에서 학습받은 음악 교육이 긍정적이게 학습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검사의 난이도에 대한 평을 물어보는 일곱 번째 질문에서 집단A, 집단B 모두 '보통이다'라고 가장 많은 수가 답했다. 그 다음으로 '어렵다'고 답한 수는 집단B가 15%, 집단A는 35%를, '쉽다'라고 답한 수는 집단B가 10%, 집단A가 1%였다. 이것으로 보아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서양음악적성 검사는 한국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 비해 심리적으로 더욱 쉽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결 과

본 연구가 밝히는 네 가지 목표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음악적성 검사에서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음악적성 검사와 실기시험과의 상관관계와 음악적성 검사와 청음시험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두 집단 모두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마도 이 결과들이 너무 낮게 나온 이유는, 실기시험이 청각적인 변별도를 측정한다기보다는 음악적인 민감성 능력 또는 테크닉적인 면을 주로 평가하는 것이기에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을 것이다. 청음검사 또한 청각적 측면을 평가하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청음 검사는 악보에 의존된 학습일 뿐만 아니라, 두 집단의 청음 검사의 난이도가 객관적으로 조사집단의 음악적 능력을 고려해서 제작된 검사인지 의문시 여겨지기 때문이다.

상관관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적성 검사와 실기시험과의 상관관계와 음악적성 검사와 청음시험과의 상관관계에서 한국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보다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서양음악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두가지 모두 상관관계가 너무 낮게 나타나서, 서양음악적성 검사로 한국음악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연구결과로 단정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한국음악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 음악적성 검사와 한국음악성취검사를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되며, 서양음악을 공부하지만 한국음악 문화에 접해 있는 한국 학생들을 위한 서양음악성취 검사의 필요성 또한 요구된다.

조사집단의 적성검사 점수와 준거집단의 적성검사 점수자료를 비교한 결과, 조사집단의 평균 점수가 준거집단보다 높았다. 그 원인은 아마도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는 이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들의 조기교육 및 음악교육열 등으로 인해 미국학생들에 비해 보다 풍부한 음악적 환경안에서 어릴적부터 자랐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들 학생들은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일정기간 이상 받았음으로 음악성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또한, 고급음악적성검사의 문항들이 특정한 문화에 특히, 한국의 음악문화에 민감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만큼 한국의 음악교육 여건이 서구와 차이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표준편차에 있어 한국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이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으며, 미국학생, 그리고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학생 순으로 분포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집단A는 준거집단과 집단B에 비해 구성원들이 동질적임을 알 수 있다.

음악적 배경을 살펴본 결과, 한국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 비해, 음악적 경험이 다양하며, 한주에 전공레슨을 받는 횟수가 많았다. 또한, 예고생활동안 자신의 음악적 소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와 본 검사의 난이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한국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 비해, 현재 전공하고 있는 악기를 학습한 기간이 길며, 과외로 음악이론이나 시창, 청음 레슨을 받고 있는 수가 많았다. 공통적으로, 이들 조사집단의 적성검사 결과가 준거집단보다 뛰어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소질은 평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요약하면,

- 1) 음악적성과 연주능력 성취검사인 실기시험 점수와 비교함으로써 고든의 서양음악적성 검사로 한국음악적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한 결과, 서양음악적성 검사로 한국음악적성을 측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결론이 내려졌다.
- 2) 조사집단의 적성검사 점수와 청음점수를 비교한 결과, 음악적성과 기초음악성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 3) 조사집단의 적성검사 점수와 준거집단인 미국학생들의 적성검사 점수자료를 비교한 결과, 한국학생들의 적성검사 결과의 점수가 높게 나왔다.
- 4) 조사집단의 음악적 배경이 서양음악적성 수준에 영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풍부한 음악적 경험, 전공 선택기간, 과외 음악학습 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3. 후행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서양음악적성평가 도구로 한국음악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것으로써, 음악교육학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자료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음악성취검사 도구인 전공실기 점수와 청음점수는 객관화된 성취검사 도구가 없었던 이유로 선택되어진 검사도구였

다. 따라서, 음악성취검사 도구의 선택이 달랐다면, 본 연구의 결과에 있어 다른 결과를 초래했을지도 모른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 다른 부파적인 조사가 병행되어 비교되었다면 또 다른 해석도 가능했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 조사 결과를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행위들이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후행연구들에서 다루어 지길 바란다.

- 1) 고든의 고급음악적성검사는 음감적인 면과 리듬감적인 면만을 검사한 조사이다. 하지만, 고급음악적성검사와 비교한 실기시험과 청음시험인 음악성취 검사는 음감적인 면과 리듬감적인 면만을 검사한 것이 아니라 음악적인 민감성, 테크닉적인 면, 악보 판단 능력 등이 추가 된 시험이다. 성취검사 영역이 적성검사의 영역과 일치된 것이 검사도구로 쓰일 때 그것들의 상관관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다 넓은 영역을 측정하는 적성검사 도구와 본인이 사용한 음악성취 평가도구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든지, 적성검사의 항목들과 일치하는 성취검사를 도구를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2) 음악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조사집단의 조건을 동일하게 해야할 것이다. 실시하는 시간과 장소, 조사집단의 비율도 등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좀 더 증대시킬 것이다.
- 3) 미국의 준거집단보다 한국학생들이 점수가 높은 이유를 찾아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4) 본 연구 결과 한국음악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음악적성 검사 도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한국음악적성 검사 도구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5) 음악적성 검사 도구 개발에 대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음악성취검사 도구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국내 단행본>

김병성, 교육연구방법. 서울 : 학지사, 1996.

송방송, 음악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 음악춘추사, 1994.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5.

<번역서>

안미자(역), 음악교육론. Charles R. Hoffer의 Introduction to Music Education.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1983.

안미자(역),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 Charles Leonhard, Robert W. House의 Foundations and Principles of Music Education.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1992.

이홍수, 임미경, 방금주, 김미숙, 장기범(역), 현대의 음악교육. Michael L. Mark의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3.

<외국서적>

Gagne Robert M (1977), The Conditions of Learning. U. S. A.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Gordon Edwin E., Woods David G (1986). Jump Right In. the Music Curriculum(Reference Handbook for using Learning Sequence Activities, Tonal / Rhythm Book). Chicago : G. I. A. Publications

Gordon Edwin E (1987), The Nature, Descrip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Music Aptitudes. Chicago : G. I. A. Publications.

Gordon Edwin E (1989), Learning Sequences in Music(Skill, Content, and Patterns. A Music Learning Theory). Fifth Editions. Chicago : G. I. A. Publications.

Gordon Edwin E (1980), Tonal and Pattern Audiation Cassettes. Chicago : G. I. A. Publications.

Gordon Edwin E (1990), Music Learning Sequence for newborn and Young Chicago : G.I.A. Publications.

Walters Darrel L. and Taggart Cynthia Crump (1989). Reading in Music Learning Theory. Chicago : G. I. A. Publications.

<학위 논문>

- 박혜영, “고든의 학습 이론에 대한 고찰 및 그 적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1993.
- 신정원, “오디에이션 능력 신장을 위한 수업모형 연구(고든의 연계학습이론을 ARCS이론에 접목시킨 수업모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1993.
- 임은애, “음악적성과 음악성취도간의 상관관계(6세 어린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학과. 1994.
- 최은식, “학습활동의 위계화를 통한 음악학습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Edwin E. Gordon의 음악학습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1991.
- Kyungsil Hyun Jung “A two-year predictive validity study of the musical aptitude profile for use in KOREA”. Doctor of Philosophy. Philadelphia : Temple University graduate board. 1992.

<정기 간행물>

- 노주희, “듣기를 통한 음악교육의 세계(I)”. 서울 : 낭만음악 제 7권 가을호. 1995.
- 방금주, “조기교육을 위한 고든의 음악학습이론”. 한국음악교육학회 : 음악교육연구 제 13집. 1994.
- 조효임, 최은식, 정진원, “한국 초등학교생의 음악적성에 관한 연구(고든의 중급 음악적성검사에 근거하여)”. 한국음악교육학회 : 음악교육연구 제 15집. 1996.
- 현경실, “음악소질 형성과정과 한국음악 소질검사 제작을 위한 방안 연구”. 한국음악교육학회 : 국악교육 제 12집. 1994.
- 현경실, “한국 학생들에 대한 고급 오디에이션 능력검사(AMMA) 사용 가능성 조사 연구”. 한국음악교육학회 : 음악교육연구. 1993.

<외국 정기 간행물>

- Carole S. Harrison, Edward P. Asums, Richard T. Serpe. Effects of Musical Aptitude. Academic Ability, Music Experience, and Motivation on Aural Skills. JRME(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ume 42 p.p. 131-144 1994.
- Charles P. Schmidt, Jean Sinor.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Music Audiation, Musical Creativity, and Cognitive Style, JRME volume 34 p.p. 160-173 1986.
- C. Victor Fung. Undergraduate Nonmusic Majors' World Music Preference and Multicultural Attitudes. JRME 1994 volume 42 p.p. 45-57 1994.

- Edwin E. Gordon, 'Developmental music aptitude as measured by the 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 *Psychology of Music*, 7(1), 1979.
- Harry E. Price, Pamela Swanson. Shanges in Musical Attitudes, Opinions, and Knowledge of Music Appreciation Students. *JRME* volume 38 p.p. 39-48 1990.
- Herschel V. Beazle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sic Education Competeney Test. *JRME* volume 29 p.p. 5-10 1981.
- J.Froseth, 'Using MAP scores in the instruction of beginning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9. 1971.
- John Kratus.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Music Audiation and their Compositional Processes and Products. *JRME* volume 42 p.p. 115-130 1994.
- John W. Flohr. Short-Term Music Instruction and Young Children's Developmental Music Aptitude. *JRME* p.p. 219-223.
- Richard Colwell. Book Reviews. *JRME* p.p. 126-130.
- R.De Yarman, 'An investigations of the stability musical aptitude among primary-age children', *Experimental Research in Psychology and Music*, j10, 1975.
- Stanley L. Schleuter. Effects of Certain Lateral Dominance Traits. Music Aptitude, and Sex Differences with Instrumental Music Achievement. *JRME* p.p. 22-31.

<세미나 발표>

- 노주희, "음악 소질과 음악 교육", <음악이 있는 마을>, 서울 : 민음사, 1996.
- 성경희, "21세기 음악 교육 비전", <음악이 있는 마을>, 서울 : 민음사, 1996.
- 방금주, "Edwin Gordon의 음악 계열학습", 한국음악교육학회 : 음악교육연구
- 현경실, "고든 학습 이론과 실제 수업에의 적용 방안".
- 현경실, "음악성취 테스트의 작성 및 평가", 한국음악교육학회 : 음악교육연구, 1993.
- Edwin E. Gordon "Aptitude for Music is a Human Born with It or is It Learned?", <음악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서울 :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연구소, 1993.

ABSTRACT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Whether to Test Korean Music Aptitude by Means of a Western Music Aptitude Test

Kim, Yoon Hee

This objective of this study consists in inquiring into the possibility to test Korean music aptitude by means of Edwin E. Gordon's music aptitude test that is widely used in the West as a tool to test music aptitude.

For that purpose randomly sampled out from Arts High School located in Seoul, (majoring in Korean music and Western music) were third grade students (n=271) to test their music aptitude using Gordon's standardized music aptitude test (AMMA), and on them tests were conducted. In as much as tests were conducted on the subjects of the two schools, it is was difficult to carry out them at the same date and at the same time. Tests were executed for the Korean music majors on June 26, and for the Western music majors on July 15. The results of AMMA's were scored manually by the students themselves. Utilized for the test work was 'Statview,' a statistic program for the Macintosh computer.

The main objectives and method of this study include :

- 1) Investigating the possibility of whether to test Korean music aptitude by means of Gordon's Western music aptitude test by comparing it with the results of the practical test, performing ability test.
- 2) Examining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aptitude test and fundamental musicality by comparatively studying the subject group's aptitude test results and sound hearing test results.
- 3) Comparing their aptitude test results of the subject group with those of American students, a control group.
- 4) And diagnosing how students' music backgrounds affect Western music aptitude levels.

The resultant findings are as follows :

- 1) It was found as inappropriate to carry out a Korean music aptitude test by a Western music aptitude test.
- 2) As tests were conducted on two different groups, it was difficult for them to be carried out at the same date and same time. Therefore, Korean music majors were tested on June 26, while Western music majors on July 15. The results of advanced music aptitude tests were scored by manual work, and 'Statview,' a Macintosh computer statistic program, was utilized for varied tests.
- 3) As a result of having compared the subject group's aptitude test with those of the control group, Korean students' aptitude test results showed higher values than those of American students.
- 4) As a result of having diagnosed how students' music backgrounds affect Western music aptitude levels, it seems that students' full musical experience, the term of major in music, by extracurricular music learning, etc. have a substantial influence upon their test results.

When seen from the subject group's musical background perspective, those Korean students who major in Korean music have more varied musical experience and have received more major lessons, as compared with those who major in Western music. Furthermore, the number of respondents who think that their musical temperament has been advanced and the number of respondents who think that the level of this test is difficult,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 Those students who major in Western music have a longer period of time in learning of instrumental playing and receive more lessons of music theories or sound hearing by extracurricular work, as compared with those who major in Korean music. In the aggregate, despite that the subject group was found to be excellent,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most of them recognize that their musical temperament is ordinary.